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과정에 관한 모형 -베트남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전혜경
(호원대학교)

1. 서론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방법
 - 3.1. 근거이론방법(grounded theory method)의 적용
 - 3.2. 연구 참여자 선정
 - 3.3. 자료 수집과 분석
 - 3.4. 연구의 엄정성
4. 연구결과
 - 4.1. 적응 경험의 범주 분류
 - 4.2. 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경험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구성
 - 4.3. 중심범주와 줄거리 묘사
 - 4.4.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적응 경험과정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경험과정을 통한 심리적 사회적 적응 경험을 분석하여 이들을 지지하기 위한 유용한 논점을 끌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 참가자 10명을 선정하여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은 '식생활 및 생활문화의 차이', '의사소통 어려움', '차별 경험', '자신에 대한 자긍심', '주도적인 삶의 실현', '어려움을 혼자 견뎌', '비전 가짐', '남편과의 가치관 차이', '남편의 정서적 지지 부족', '시댁 식구와의 공존 어려움', '시댁 식구의 도구적 사고체계', '자녀 양육 부담감', '현실 개선을 위한 노력', '주변의 정서적 지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 '다문화 기관의 활용', '한 가족 공동체로 뿌리내림', '타인에 대한 이타적 행동'이란 18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경험과정은 첫째, 두려운 현실, 둘째, 단절된 일상, 셋째, 현실여건의 부담감, 넷째, 세상을 향한 도전, 다섯째, 주도적인 삶의 실현 단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지지를 위하여 적응발달 단계적 개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에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이주여성의 문화 차이 극복

1.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시대적 변천에 따라 개방정책이 가시화되고 국내외 인구 이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가시화, 결혼 수급의 불균형, 산업사회 진입으로 인한 업종의 변화로 외국노동자의 증가 등 외국인이 국내 체류하는 유형이 다양한 형태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외국인들이 장기체류로 이어지면서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주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변화 속도가 빠르고 여러 나라와의 다양한 교류로 인하여 다민족·다문화·다인종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아시아나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주해온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제결혼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구 수는 2021년 346,017가구이고, 이들 중 결혼이민자 수는 285,005명으로 결혼이민자들의 국내유입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여성가족부 2022; 행정안전부 2020).

이런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한국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의 양적인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한국사회에서 정착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은 결혼하기 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생활 터전을 떠나 생소하고 문화적 차이가 있는 타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대체로 결혼중매업체를 통하여 서로 간에 교제 없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 결혼한 후 바로 한국에 입국한다(이채영 2015).

낮선 한국생활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배우자나 시부모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다양한 어려움과 언어 장벽 등의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과 자녀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박희연 2022).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결혼이주여성의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은 이주여성 출신국에 대한 이해와 문화 간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며(허명준 2020), 결혼이주여성을 차별하여 단순히 한국문화에 흡수되기를 원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여성의 결혼연령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며, 배우자의 나이는 10년 이상으로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에 있어서 중대한 인생 과제로는 며느리, 아내, 엄마라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로 인하여 가정 내에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해야 하는 일차적인 책임자의 역할이 기다리고 있으며 자녀 양육의 어려움도 한국 생활에서 적응하는 데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김철희·조남예 2017; 이은주·전미경 2014).

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 결심을 하게 되었지만, 초반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현실에서 직면하게 된 한국 생활은 괴리감을 인식하기에 충분하였다. 다양한 문제가 결혼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큰 실정이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과 한국 남성이 결혼하면서 서로 만족스러운 만남과 신뢰감 형성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채, 지인의 소개나 결혼 중매업체를 통하여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이은주·전미경 2014).

더욱이 최근에 높아진 K-pop과 한국 드라마 등 한국문화의 인기

등에 편승한 한류의 영향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삶에 대한 심층적 이해의 부족과 외견적인 한국 생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환상만을 지니고 입국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이 본 연구에서 이주여성의 결혼생활 '경험 중에서 힘든 시기'와 '이를 극복한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심리적 적응 경험에 대해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기존의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적응을 다룬 다양한 연구들은 이들의 문화적 적응이나 결혼 적응(김수진·홍창의 2017; 김현숙·현숙 2010; 박동숙 외 2019; Byoun and Leung 2015)에 대해 분석하거나 사회문화적응과 가족 내에 자녀 양육과의 관계(김미영 2017; 정명희 2013) 사이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변수를 밝히는 연구들이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 됨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김순옥·김현숙 2016; 유진희 2014; 이승민·구차순 2013; 이은아 2013) 등은 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 과정에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심리적 적응 경험을 분석해 내는 것에는 미약한 부분이 있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결혼생활 적응에 대해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이주여성의 경험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결혼생활 적응 경험을 통한 이주여성의 주도적인 입장의 적응 경험에 대해 깊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삶의 다양한 적응 경험을 상황적 기반에서 살펴보는 현상학적 연구를 실행하고자 한다. 이 현상학적 연구는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보편적 본질로 설명할 수 있다(이은주·전미경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경험에 대한 가족 및 지역이나 사회 일원으로서의 적응 경험을 탐색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생활과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사나 상담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적응과정에 관한 모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생활 중에 힘들 때는 언제인가?
2. 결혼생활 중에 힘든 경험은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2. 선행연구 고찰

결혼이주여성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촌 미혼 남성들의 국제결혼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의 국제결혼이 증가에 힘입어 한국사회로의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한국정부는 2000년대 후반 정책적으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면서 다문화사회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준비하게 되었다(이은주·전미경 2014; 박동순 외 2019)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 국가로는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이라는 점에서(여성가족부 2022), 이들은 자신들이 갖지 못했던 사회적, 경제적 위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발판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점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있어서 국제결혼은 자신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는 계기가 되고 자신들이 살아온 생활보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등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한국사회로의 이주를 희망 한다(서정원 2018).

이러한 기대와 다르게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생활에서 심리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수진·홍창의 2017).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에서 힘든 점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언어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차별,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여성가족부(2022) 조사에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첫 번째가 언어문제(22.9%)이고, 다음은 경제적 어려움(21.0%), 외로움(19.6%) 순으로 나타나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빈곤한 나라에서 왔고 낮은 교육수준을 가졌다는 편견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악영향을 미

칠 수 있다(이승민·구차순 2013).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는 외국인 엄마로 인하여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면서 또래 친구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김경자 2008).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은 언어발달 지체 및 문화부적응 등으로 인한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력에서 낮고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동하거나 반대로 폭력성을 드러내는 보이는 등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조영달 2006).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과제는 가족 체계 내에서 수행하는 정신적이고 신체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Byoun and Leung 2015). 이러한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 적응 경험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결혼이주여성의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고미숙의 연구(고미숙 2019)에서 이주 동기는 경제적인 이유와 한류의 열풍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지인들에 대해 부러움이나 결혼을 하면 잘 살 수 있게 되고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국제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박수정(2018)의 생애사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동기는 본국의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외에 이혼에 의한 현실 도피성, 사랑과 연애라는 다양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지영의 연구(2019) 결과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국제결혼을 하기 된 동기로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설계하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행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구세롬미 2022).

이러한 질적 연구들이 결혼생활 과정에서 부부, 부모 자녀 관계, 시댁 식구들이나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심리적 사회적인 적응 경험을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제결혼을 하게 된 동기에서부터 다양한 어려움 등에 대한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인지하고 이러한 이론적 편견들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경험

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이후 분석을 편향되지 않도록 탐색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생활영역의 복합적인 특성들을 고려하여 어떤 경로로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는지, 힘든 시기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 경험에 대한 경로를 파악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근거이론방법(grounded theory method)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로 결혼생활을 경험하는 당사자가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맥락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드러내는 실존이다. 이러한 방법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에 중점을 두는 대표적인 질적 연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이론 방법(Glaser & Strauss 1967)을 선택하고자 한다.

근거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되는 사회상황에 관하여 그 단계에 대한 의도를 끌어내는 것으로, 이러한 사회상황이 어떠한 현상적 조건과 시간적 경과에 따라 어떻게 역동적으로 펼쳐지는가에 중점을 두는 과정 연구로서 강점이 있다(박동숙 외 2019; 임해영·이혁구 201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구조적 분석 절차를 통하여 어떤 상황을 귀납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를 통하여 경험적 존재 이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이론 방법(Strauss and Corbin 1998)이 본 연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3.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먼저 결혼이주여성으로서 결혼 7년차 이상의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 까닭은 결혼 7년 차 이상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생활 전반적인 과정을 통하여 힘겨운 고비를 넘기면서 한국생활에서 안정화시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의 상호작용 및 자녀 양육의 전반적인 과정을 통하여 한국생활에서 7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주여성이 결혼생활을 하면서 한국어로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의 나이나 직업 및 학력 등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론적 표본추출 방법 중 하나인 '평판적 사례선택 방법(Reputational Case Selection)에 의해 다문화 기관 상담전문가에게 결혼이주여성 4명을 추천받았다. 이 평판적 사례선택이란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상담전문가에게 이 연구의 참여자 선정 조건에 부합하면서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들을 추천받는 방법이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6명은 연구자가 다문화 책임교수로 있으면서 강의하는 학과목의 다문화 이주여성 학생 중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직접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희망한 학생 중에서 연구에 적합한 학생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에 선정된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N=10)

Partici- -pants	연령	남편 나이	본인 직업	남편 직업	결혼 기간	교육 수준	자 녀 수	가족거주 관계
1	29	48	주부	건설업	7년	대학재학중	2	부부, 친정어머니 아버지, 자녀
2	28	49	주부	버스기사	7년	대학재학중	2	부부, 친정어머니, 자녀
3	32	51	주부	화물차운전	11년	대학재학중	2	부부, 자녀
4	25	53	주부	샤사업	12년	대학재학중	2	부부, 친정어머니, 자녀
5	32	45	카페 메니저	건설노동자	12년	대학재학중	2	부부, 시어머니, 자녀
6	31	48	다문화 센터	전기기술자	11년	대졸	2	부부, 자녀
7	40	55	이주 여성 상담사	화물차운전	8년	대졸	2	부부, 친정부모, 자녀
8	37	66	주부	화물차운전	15년	고졸	2	부부, 자녀
9	31	55	설계사	사업	8년	대학 재학중	3	부부, 자녀
10	34	54	학생	농업	11년	대학 재학중	2	부부, 자녀

3.3. 자료 수집과 분석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을 통한 경험은 대단히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믿음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주여성들의 마음을 심도 있게 살펴보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와의 신뢰감 형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추천을 받거나 연구자의 강의를 듣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예비 면담을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본격적인 1:1 면담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약 10개월 정도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1인당 120분 이상 정도의 인터뷰 시간을 가졌고, 2회씩

개별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이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면담과 직접 만나 추가로 자료를 확보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초반 면담에서는 일반적인 질문을 통하여 일반적 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참여자와의 신뢰감을 형성하였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와의 신뢰감이 형성되고 난 후에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여 초점화하였고 자료의 개념과 범주화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3회 이상 읽으면서 한 개인이 한 말의 내용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단락을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에서 공통된 내용을 모아서 연구에 필요한 내용을 원자료 그대로 작성한 후 개념으로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기록된 자료를 개념으로 분류된 내용에 제목을 작성한 후 각 개념을 분류하고 비교하여 작성하였다. 개념들을 생성할 때는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나 사건의 여러 차원 등을 고려하면서 논리적으로 중첩되지 않도록 분류하여 개념-하위범주-범주-패러다임 요소를 도출하였다.

3.4. 연구의 엄정성

질적 연구방법에서의 엄정성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얻은 연구결과와 결과 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신뢰성의 확보에 관한 것을 말한다.(최미경 2018; Lincoln and Guba 1985)

질적 연구에서 신뢰성 보장을 위한 일치된 기준은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Padgett(Trauss and Corbin 1998)이 제안한 엄정성 확보 전략을 활용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과 긴 시간 동안의 걸친 관계 형성(prolonged engaged)을 통하여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질적 연구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형적인 접근 방식으로 현장에서 긴 시간 동안에 걸쳐 이루어지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관계가 연구 참여자의 대응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진정성 있는 자료를 이끌어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을 함께 하기 위하여 그들의 소그룹 생일 파티나 아기 돌잔치에 참여하는 등 연구 참여자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연구 참여자들에

게 신뢰감을 줄 수 있었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연구 참여자들은 편안하면서도 진솔하게 인터뷰에 응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연구자가 다문화 이주여성의 책임교수로 재직하면서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상담하고 강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둘째, 본 연구를 위한 지지집단을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지지집단은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긴 시간에 걸친 연구의 과정에서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고, 연구 참여자의 삶에 깊게 관여하거나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연구의 논점과 방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자원이다.

본 연구자의 동료 교수 중 질적 연구방법을 전공한 동료 교수 1인을 포함하여 다문화 이주여성을 10여 년간 상담한 다문화센터의 상담사, 법원에서 10년 이상 상담활동을 한 전문가로부터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하는 동안에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연구의 엄정성 확보에 노력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에게 분석한 작업을 확인받기 위하여 재접촉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 참여자를 통하여 재확인하는 작업은 연구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의 신뢰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터뷰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문맥이 어색한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락하여 약속한 후 이루었다. 즉, 학교에서 만날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가 수업이 끝난 후에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만나거나 학교 밖의 다문화센터에서 분석 작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경험과정의 질적 연구로, 연구자의 윤리적 인식과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배려는 연구 과정 동안에 지속되어야 할 요소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이 만남의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는 연구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익명성과 비밀보장, 인터뷰 내용에 대한 녹음, 구술 자료는 학문적인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것,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 바로 폐기처분 할 것이라는 내용 등을 안내하였다.

4. 연구결과

4.1. 적응 경험의 범주 분류

〈표 2〉 적응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요소와 범주와의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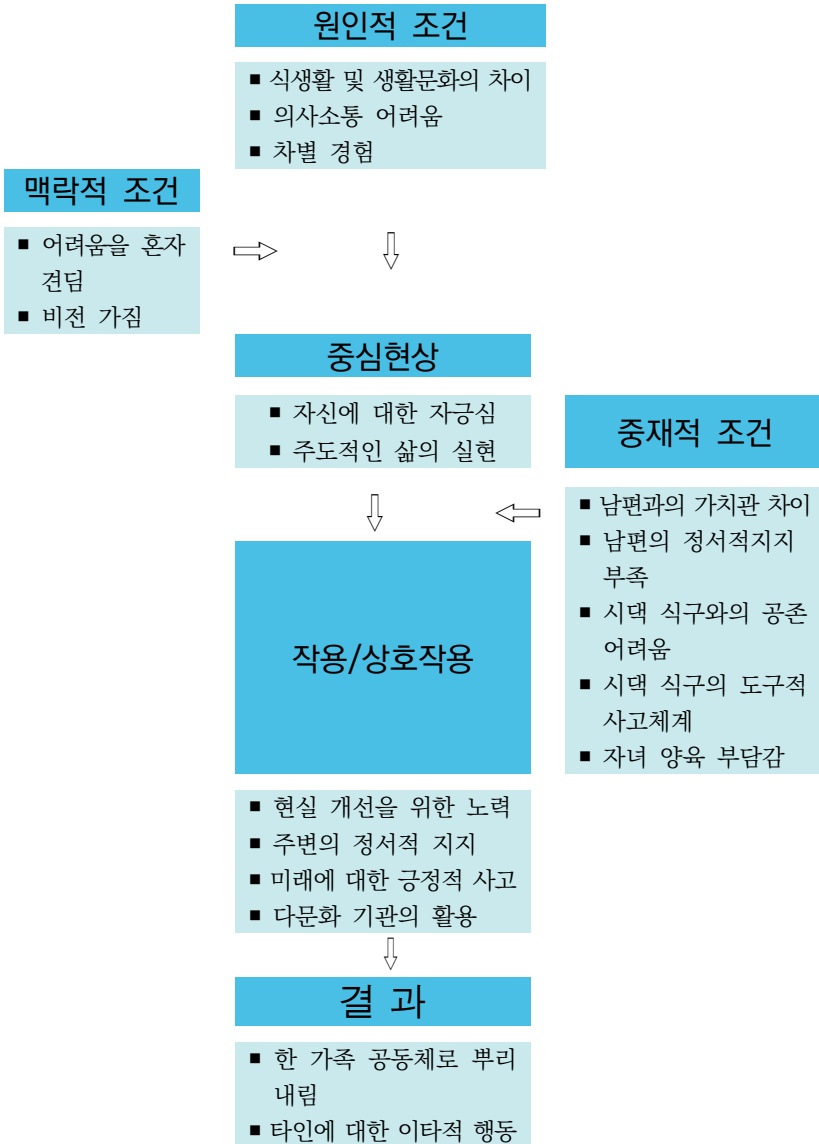
적응 경험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요소
베트남은 아침을 간단하게 사 먹음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힘들었음 김장하는 것이 힘들었음 매일 아침에 밥을 차려야 해서 힘들	음식문화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	식생활 및 생활문화의 차이	원인적 조건 (causal condition)
겨울 날씨가 너무 추워서 힘들었음 집안일을 안 하는 남편 혼자서 집안 일을 다함	생활문화의 차이		
베트남에서는 출산 후 2~3개월 일 안 함	출산문화의 차이		
베트남에서 결혼비용은 남자가 다함 한국에서는 결혼비용을 부분적 부담	결혼문화의 차이		
고집 센 시어머니 외국 며느리에 대한 이해 부족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한 이해 부족	시부모의 이해 부족	의사소통 어려움	
서투른 언어에 대한 비난 한국말을 몰라서 너무 힘들 언어 불소통으로 차별받을 때가 있음	언어소통의 어려움		
임신 중 섭취 어려운 음식으로 고통받음 국적 취득해도 차별의식 남음 늘 나는 외국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게됨	차별의식의 경험	차별 경험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태도 보임 업무 중 한국말의 서투름에 무시당함 외국인이라고 집단 따돌림 경험 직장에서 힘든 일만 시킴	한국생활의 어려움 호소		

적응 경험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요소
두 나라 언어 사용 업무활용 편함 방학 활용 베트남 언어 연수 용이 자녀의 베트남어와 한국어 혼용사용	이중언어 활용 의 장점	자신에 대한 자긍심	중심현상 (phenomenon)
베트남어 자장가나 노랫말을 계속 들려줌 베트남어를 널리 알고 싶음 여성의 날 등 베트남 문화 적용하고 싶음	자국 문화에 대한 애정		
남편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요구함 통역사가 되고 싶음 취업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에 노력	자신의 꿈 실현을 위한 노력	주도적인 삶의 실현	
대학 다닌다는 자부심이 생김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음 자녀가 엄마가 대학교에 다닌다고 좋아함	배움에 대한 자부심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음 아이들의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음 아이에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음	당당한 부모가 되고 싶음		
외롭거나 힘들 때 어려움을 홀로 견뎌 가족 행사에서 소외 당하면서 참음 남편 부재 시 외로움 불안감 느낌	외로움을 혼자서 견뎌	어려움을 혼자 견뎌	맥락적 조건 (contextual condition)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잣말을 자주 함 속상할 때는 혼자서 삭혔음	외로움 극복 방법		
가족과 잘 살아서 행복해지고 싶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잘 살고 싶음	행복하게 살고 싶음	비전 가짐	
가난을 극복하고자 오게 됨 잘 살고 싶은 희망을 갖고 있음	이주하게 된 동기		
남편이 가정사에 상의 없음 함께 외식한 경험 없음 용돈을 주는 데 너무 인색함	남편의 독단적 태도	남편과의 가치관 차이	중재적 조건 (intervening condition)
신랑이 말과 행동의 차이가 많음 양보하거나 이해해주지 않고 이기적임 남편은 경제적 어려움에 책임을 못 느낌	남편과의 가치 관의 차이		

적응 경험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요소
감정이 상한 상태를 몰라 줘 잘해주면 좋겠음 고맙다 등의 감정적 표현이 없어 서운함	남편의 감정적 지지 부족	남편의 정서적 지지 부족	
화가 나 있어도 관심 없음 감정 표현이 없는 남편 여자 입장을 너무 몰라줌	남편에게 진정한 소통을 원함		
시부모의 치매로 힘들 시부모 모시는 것이 힘들었음 시부모 부양을 우리 부부에게만 맡김	시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감	시댁 식구 와의 공존 어려움	
시댁 식구들은 항상 자기 위주로 함 시댁 식구들과 함께 생활하면 불편함 시댁 식구들에게 눈치 보고 조심하게 됨	시댁식구 공존 부담감		
신뢰 없는 언어사용에 상처받음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서 믿지 못함 혼자서 행동하지 못하게 제약함	신뢰성 없는 관계 문제	시댁 식구의 도구적 사고체계	
시댁 식구들의 자녀생성의 독촉 시댁 식구들의 노동적 가치관	자녀생성에 도구적 시각		
나의 실수가 자녀교육에 영향 줄까 걱정함 한국 사람보다도 잘해야 한다는 강박감	자녀 양육의 스트레스	자녀 양육 부담감	
학교생활의 차별 대우 강박감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야 하는 부담감	학교생활의 차별 불안		
베트남어로 된 학습지도메뉴얼 부족 한국의 공부방법이 너무 달라서 힘들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질문에 대답 못 함	학습방법 접근에 대한 어려움		
심리적 부담으로 상담받음 다문화센터에서 상담받음	심리상담 받은 경험	현실 개선 을 위한 노력	
노래로 스트레스를 풀었음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움을 달랠	취미생활로 스트레스 해소		
커피숍, 빵집에서 일함 자녀 학비에 보탬	가정경제에 조력함		

적응 경험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요소
친구들이 의지가 됨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고민 나눔	지인들과의 고민나눔	주변의 정서적 지지	
친척들의 도움을 받음 어려운 일 생기면 친척들과 상의	친척들의 도움		
대학 다니는 것에 자긍심을 느낌 미래를 위해 공부함	미래 생활에 대한포부	미래에 대한 긍정 적 사고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 생태과정, 다문화교육과정 공부	미래를 위한 구체적 접근	다문화 기관의 활용	
다문화센터에서 한국말과 요리 배움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배워서 소통함	언어교육의 효과		
다문화센터에서 생활의 도움 받음 다문화센터의 도움으로 한국생활 적응에 유용	다문화 기관의 도움		
다문화센터에서 친구 만남 다문화센터에서 인간관계 형성 도움이 됨	인간관계 형성 에 도움	한 가족 공동체로 뿌리내림	
시어머님이 용돈 주심 아기도 잘 봐주시어 시어머님을 좋아함 딸처럼 잘해주심	시부모의 긍정 적인 도움		결과 (consequence)
남편이 든든한 힘이 됨 남편이 가정적이어서 좋음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지지해줌	남편에 대한 긍정적 태도		
남편이 시어머님과 관계를 이어줌 남편 잘 만나서 공부를 할 수 있었음	남편의 지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음 임신한 후배를 도움	남을 돕고 싶은 마음		
병원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됨 생활지도사 활동 전개	사회에 대한 봉사		

4.2. 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경험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구성



〈그림 1〉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모델

4.2.1. 원인적 조건(causal condition)

원인적 조건이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적응을 통한 경험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박동숙·임해영·김은경 2019).

본 연구에서는 ‘식생활 및 생활문화의 차이’ ‘의사소통 어려움’ ‘차별 경험’이란 3가지 범주가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사회로 이주한 후 삶에서 경험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식생활 및 생활문화의 차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유사적인 어려움 중의 하나로 식생활의 차이였다. 이주여성들의 모국 음식은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싫어하거나 반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모국 요리는 하지 않게 되고 한국 음식 조리법을 배워나가야만 했다. 이들은 마늘, 파, 고추장 같은 양념을 많이 활용하는 김치나 한국 음식 등은 만들기도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였다. Participant-10의 경우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에 필요한 양념이나 옥수수 등 뭐든지 다 심고 직접 얻어서 더 힘들었다고 한다.

나. 의사소통 어려움

결혼이주여성은 초반에 입국하여 모든 것이 어색하지만 무엇보다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결혼이주여성으로 결혼한 남편은 시댁식구 중에서 늦게까지 부모님과 지내다가 결혼하여 대부분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남편과의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시댁 가족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차이였다.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자신의 견해나 감정을 표현하기 힘들어하며, 자녀의 같은 학교 학부모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감을 가지고 친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사전을 하나의 소통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고 행동

으로 의견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해나 왜곡이 발생하고 남편과 시댁 시구와도 다투기도 하였다. 일상 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만 존댓말이나 낮춤말, 관용어의 활용과 내면적인 의미 등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다. 차별 경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들 대부분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자신들을 잘살지 못하는 나라에서 왔고, 본국에 있는 친정 식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으며,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본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은 이웃이나 자녀학교의 학부모 모임 등에서 한국인들과 같은 다문화인들에 대해 좋은 인식을 지니고 있지 않음을 느끼면서 소외감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더욱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서로 간에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은 본국의 경제적인 가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면서 친정식구들에게 경제적인 원조를 위한 수단의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이주여성들에게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결혼하여 언제 도주할지 모른다는 회의적인 인식이 사회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러한 일을 반영하듯이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은 이주여성에게 생활 속에서 대체로 경제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일차적으로 언어의 소통문제가 있으나 상대방을 알려고 노력하거나 이해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지만 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Participant-7은 이주여성이 한국 가정에 제대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해주라는 말과 함께 남편에게도 먼저 잘해주고 시부모님에게도 먼저 다가가라고 한다. 한국 남편이나 시댁식구 입장에서는 외국인 아내가 한국문화나 생활방식에

따를 것이라는 기대를 지니고 있었고, 모국에서의 문화 태도 등을 한국방식으로 바꾸어 살아야지만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4.2.2.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맥락적 조건이란 인식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나 조건을 일으키는 미시적 조건이면서, 좀 더 세부적인 심리적 작용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박동숙·임해영·김은경 2019).

본 연구에서는 ‘어려움을 혼자 견뎌’ ‘비전 가짐’이란 심리적 맥락들을 드러내고 있다.

가. 어려움을 혼자 견뎌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결혼 이주라는 시공간적 변화의 경험을 통하여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결의가 얼마나 분명한가에 따라 가족 간의 의사소통문제 해결의 정도와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한국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경험을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고 작은 위기 상황을 넘기면서 남편이나 시댁 식구와 더불어 좀 더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한 이주여성들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문화적 차이나 어려웠던 부분들을 처음에는 주로 피하거나 참으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지만, 자신을 스스로 이겨내고 주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면서 필요한 도움을 능동적으로 찾음으로써 자신의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가지는 이주여성들도 있었다.

나. 비전 가짐

이주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꼭 가난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입국한 것은 아니다. 이주여성들은 자신의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강인한 사람들이며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자신의 일을 열정적으로 해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녀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 맨 처음 가졌던 마음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가정에서 평등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평범한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실현하기를 원하였다.

4.2.3. 중심현상(phenomenon)

중심현상은 일련의 원인 조건과 맥락적 조건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게 되고, 작용/상호작용 접근 전략에 의해 조절되는 중심사고나 사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한 자긍심’ ‘주도적인 삶의 실현’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주여성들은 자신이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들을 선택하여 실행하였다.

가. 자신에 대한 자긍심

이주여성들은 한국문화에 적응하면서 동화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더라도 반드시 동화적인 특징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이주여성들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문화적인 차이를 경험할 때 남편에게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국문화와 모국 문화를 적절히 혼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모국 문화를 남편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더욱이 자녀가 엄마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기 원하고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주여성들은 자녀의 교육에 전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특히 자녀에게 자신들의 모국어를 가르칠 계획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엄마의 문화를 자녀에게 알려주고 이중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새겨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중언어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자녀의 차후 성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나. 주도적인 삶의 실현

결혼이주여성들은 초기 결혼생활에서 생활문화의 차이,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 차별적 대우에 대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힘든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을 혼자서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지니고 힘든 한국생활에서 자신과의 타협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배움에 대한 자부심을 통하여 남편, 시댁 식구, 자녀들에게 당당한 한국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며 자신과 자녀, 가족이 함께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며, 회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운명공동체이다.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경계인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자녀에게만은 이러한 상황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다스리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

4.2.4.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의 개선이 작용/상호작용 접근 전략을 권장하거나 강제하도록 영향을 주어 좀 더 구조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재적 조건은 맥락적 조건에 비하여 다양하고 넓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형성하고 주도적인 삶을 실현시키기 위한 중재적 여건으로 '남편과의 가치관 차이' '남편의 정서적 지지 부족' '시댁 식구와의 공존 어려움' '시댁 식구의 도구적 사고체계' '자녀 양육 부담감'의 5가지 범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과의 가치관 공유나 정서적 지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 당황스럽고 혼란스럽다고 한다. 이러한 혼란은 오랜 기간 다른 나라 문화권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라서 결혼생활은 본국과의 문화 차이점과 살아오면서 각자 형성되어 온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여기에 남편뿐만 아니라 챙겨야 할 시댁 식구와의 공존 부담감과 시댁 식구의 도구적

사고체계로 인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국에서 자신들이 보고 자란 양육방법과 한국에서의 양육방법이 달라서 자신의 양육방법이 자녀에게 반감을 일으킬 때, 혼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나아가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공부했던 환경과는 확실하게 다른 한국의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에 거부감을 지닌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자녀교육을 위해 동참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가. 남편과의 가치관 차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에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힘든 요인은 남편과의 문화적 갈등이었다. 이들은 남편이 자신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처가의 문화 자체를 수용하려는 태도에 대해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남편이 다문화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외국인 아내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문화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남편의 정서적 지지 부족

언어소통이 잘되지 않고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는 성인 남녀가 만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문화가 다르고 국적이 다른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종종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때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일어날 여지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들이 자신의 화난 감정 등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할 때 문화 차이를 느낀다고 하였다. 자신이 남편과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알아주지 않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다. 시댁 식구와의 공존 어려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결혼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일상생활 속에서 시댁 식구와 관계를 맺고 접촉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또 다른 한 축을 이룬다. 한국의 보통 며느리가 겪는 시댁살이의 어려움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시댁 식구의 언행이나 행동에서 외국인 며느리에 대해 경시하는 차별이 실재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갈등에 작용하는 요인은 의사소통의 한계뿐만 아니라 인식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라. 시댁 식구의 도구적 사고체계

본 연구의 결혼이주여성 중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 이주여성들에게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한국인은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했다. 특히 시댁 식구들이 이주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적이며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 자녀 양육 부담감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은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해 큰 관심과 염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주여성들은 자신들 때문에 지적 성숙이나 언어발달이 늦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주여성들은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어린 자녀의 언어발달에 방해를 줄 수 있다는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시부모를 모시거나 남편과 함께 일을 하는 등 삶의 현장에서 분주히 활동하면서 자녀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기 힘들어 자녀의 성장기 내내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을 적절하게 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4.2.5.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중심현상이 맥락적 조건 안에서 실재할 때 목적을 조절하여 실행하

는 것으로 목표 지향적인 특징을 가진다(강유미·신혜중 2010).

중재적 조건에 대처하거나 상황을 다루기 위해 행해지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다. 본 연구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실 개선을 위한 노력’ ‘주변의 정서적 지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 ‘다문화 기관의 활용’으로 나타났다.

가. 현실 개선을 위한 노력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그들의 적응 경로는 혼돈과 당황스러움, 현실에 대한 좌절, 외로움과 같은 비관적 체험들이 좀 더 많았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실제 생활을 회피하기보다는 직면하면서 결혼생활을 지속하며 한국 사회에 친근해지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어떤 참여자는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현실을 극복해 나가고 또 다른 참여자는 자신의 취미 생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다.

나. 주변의 정서적 지지

이주여성들이 결혼 초기에는 다양한 갈등과 혼돈 속에서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해 후회하기도 하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도 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이주여성들은 결혼생활 속에서의 힘든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방식들을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친구나 친척 주위의 도움으로 적응의 어려움을 추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

이주여성들은 결혼 초기 힘들었던 점들에 대해 조금씩 극복해 나가면서 경제적으로 여전히 힘든 상황이고 남편이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남편이 못됐거나 해로운 사람이 아니고 함께 할 사람이며 여기에 소중한 자녀가 있으므로 가족애를 자각하게 되고 미래 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

라. 다문화 기관의 활용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복지기관 중 하나인 다문화 기관에 역할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문화 기관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거나 같은 처지에 다문화 사람들을 만나 서로 심리적 지지로 정신적인 지원을 받으며 한국생활에 적응해 가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다.

먼저 한국에 정착한 선배들이 일상생활에 대한 세심한 조언 및 상담을 해주거나 다양한 친목 모임을 형성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지지해주는 사례도 있었으며 본국의 친구나 친지의 지지가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나타났다.

4.2.6. 결과(consequence)

결과는 상호작용 접근 전략의 생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는 중재적 조건에 대처하는 작용/상호작용 접근 전략으로 의식적이고 계획적 행동을 통하여 최종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현상에서는 ‘한 가족 공동체로 부리내림’, ‘타인에 대한 이타적 행동’이라는 범주가 배정되었다.

가. 한 가족 공동체로 부리내림

이주여성들은 남편과 시댁 식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그들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그들의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과 어머니로서의 강인한 모성애는 참여자들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 뜻깊은 버팀목이 된다. 특히 자녀의 출산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아이를 통하여 남편과의 사이가 변화되기도 하였다. 평범한 아내들처럼 이주여성들에게도 결혼생활의 충족은 남편의 애정이었다. 남편과의 사이가 가깝고 호의적일수록 그들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얻고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다.

나. 타인에 대한 이타적 행동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에 의하면 인간의 건강한 특징은 ‘사회적 관심(social interest)’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관심은 공동체감을 추구하며 사회적 상황에 반응하는 타고난 성향을 말한다.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지 않고 타인의 안녕을 돌보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생활에서의 힘든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을 다른 누군가를 도움으로서 자신들의 원래 안에 숨겨져 있던 이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4.3. 중심범주와 줄거리 묘사

본 연구의 중심범주는 『한 가족 공동체로 뿌리내림, 타인에 대한 이타적 행동』으로 상정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이란 낯선 나라에서 결혼생활이라는 알 수 없는 세계를 탐험하듯이 결혼생활 경험 과정에서 자신과 남편, 자녀, 시댁 식구 속으로 한 가족이 되기 위해 뿌리내리기 위하여 적응의 역동적인 모습들을 나타내게 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여정 속에는 한국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 적응하기 힘든 상황 및 당면한 난제 속에서 인내하는 등 여러 차원적인 가치와 단계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 가족 공동체로 뿌리내리는 길은 고생스럽고 어려움이 많은 험난한 절차이기도 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어린 나이에 낯선 나라 한국으로 건너와 결혼과 함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힘든 경험을 하게 된다. 그들은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결혼생활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남편, 시댁 식구와의 문화 차이나 편견 등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에 더하여 남편의 무관심으로 서운하게 되고 시댁 식구의 도구적 사고체계 등의 난관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자신의 결혼 선택에 회의감을 지니게 되기도 한다. 나아가 연구 참여자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하여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름에 부정적인 낙인과 따가운 시선들로 인하여 주변인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그렇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들의 심리적 사회적으로 적응을 돕

는 지원체계가 존재한다는 것도 함께 성찰하고 있다. 여기에 자신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남편과 시부모 그리고 어려움을 도와주는 친구, 친척, 다문화센터나 지역사회 복지 전달체계 종사자 등 주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지체계에 도움을 받아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여 여러 분야의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따 자녀에게 담당하고 남편이나 시댁 식구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은 자신들의 힘들었던 경험을 거울삼아서 후배 이주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생활지도사로 활동하는 등 이타적인 삶을 선택하고 있다. 결혼생활에 대한 차가운 현실적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혼자서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한국 가정에 뿌리를 내리고 타인들을 도우면서 열심히 생활해나가고 있다.

4.4.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적응 경험과정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적응 경험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안된 패러다임에서 범주의 변화를 파악하고 핵심 범주에 따라 이야기 전개를 통하여 중심현상을 중심으로 일련의 조건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변화해 가는지를 살펴보았다.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과정은 두려운 현실, 단절된 일상, 현실여건의 부담감, 세상을 향한 도전, 주도적인 삶의 실현이라는 5단계로 변화되고 있다.

4.4.1. 두려운 현실

첫 번째 단계는 두려운 현실에 직면하는 단계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사회나 남편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남편과 그 주변 환경에 대해 자신의 기대와 차이가 있음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남편을 통하여 경제적인 자유와 행복한 가정을 바라보고 왔으나 남편의 직업은 불안정하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낮은 경우가 많았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의 갈등으로 결혼 초기부터 어려운 경험을 겪기도 하여 현실에 대한 두려움 마음이 생성되기도 한다.

4.4.2. 단절된 일상

두 번째 단계는 단절된 일상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은 기대했던 결혼생활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하면서 결혼이란 선택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또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인 상황이 여유롭지 않아 본국에 있는 친정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자녀를 낳고 양육해야 하는 힘든 상태, 일상의 가사노동, 자신들에게 무관심하고 무뚝뚝한 남편,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인 상황, 시댁 식구들을 돌보아야 하는 부담으로 느끼지만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누구와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며 그냥 혼자서 감내해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4.4.3. 현실여건의 부담감

세 번째 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이 낯선 한국생활에서 마주하게 된 현실여건의 부담감을 직면하는 단계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어로의 의사소통이 순조롭지 못하고 모든 일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 좀 더 나은 경제적 형편을 기대했지만, 팍팍한 경제적 여건에서 가정살림뿐만 아니라 직장생활도 함께 해나가야 하는 고달픈 삶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남편의 심리적 지지를 기대했지만 부족한 정서적 지지로 실망하고 시댁 식구의 도구적 사고체제로 차별적 시선과 태도에 상처를 받기도 하며,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감으로 직면하게 되기도 한다.

4.4.4. 세상을 향한 도전

네 번째 단계는 세상을 향한 도전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생활에서 주는 온갖 어려움과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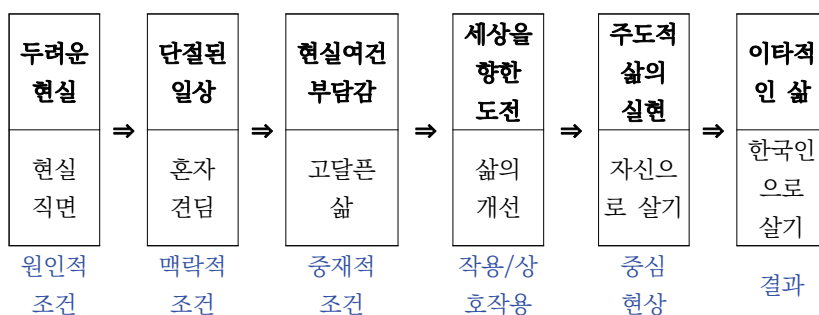
든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주여성 스스로는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지역사회복지관 중의 하나인 다문화센터를 방문하여 한국어도 배우고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참여하면서 세상 밖으로 스스로 나오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경우이다.

4.4.5. 주도적인 삶의 실현

다섯 번째 단계는 주도적인 삶의 실현 단계이다.

이주여성들은 한국인이 되기 위하여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은 이름을 개명하고 한국 이름을 취득하는 적극적인 노력 속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며,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대학공부나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하면서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한국인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자녀들에게 당당한 부모가 되고 싶기도 하여 자녀들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나타낸다. 이에 더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학공부를 이어가거나 사회적으로 이타적 행동을 나타내어 자녀들에게 모델학습의 표본을 보이기도 한다.



〈그림 2〉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과정에 관한 모형

5.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경험과정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의 한국 사회 적응단계를 파악하여 적응개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을 탐색하기 위해 선행연구(박동숙 외 2019)를 중심으로 연구의 틀을 마련하였고, 실증적인 연구를 하기 위하여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10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은 한국문화를 처음 접하면서 식생활 및 생활문화의 차이에 어려움을 느끼고 언어나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스스로 위축되며, 여기에 차별적 대우에 대한 경험으로 한국생활의 앞날에 대해 우려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다양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누구와 어려움을 나누기보다는 혼자서 극복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외로움을 느낄 때도 본국의 가족들에게는 말도 못 하면서 그리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승덕 2013; 안옥희·전미순·황윤영 2011; 이둘녀·심미영 2013).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나 시댁 식구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앞서 자신감을 지니고 친교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양진향·박현주·김송순·강은정·변상희·방지수 2012)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는 한국어 능력이 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생각해볼 때 한국어 의사소통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재적 조건으로는 남편과의 가치관 공유가 어렵고, 남편의 정서적 지지 부족, 시댁 식구와의 공존에 대한 부담감이나 도구적 사고 체계와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 등의 어려운 중재적 조건이 존

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여건 속에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소외감 등 다양한 차별적 대우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복합적인 어려움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 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오은정·정향미 2019)는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중재적 조건을 토대로 이주여성들에 대한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 및 상담치료를 통한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주여성들에 대한 사례유형별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기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의 원조가 요청된다.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의 공통적인 적응의 어려움으로 나타난 것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의 가정 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은 취업이나 직장을 다니게 되고, 여기에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의 대부분 일차적인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충분하지 않은 한국어 실력과 한국어 교육시스템에 대한 지식 결핍을 통감하게 됨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지니고 있었지만, 자녀에게 자국의 언어를 노출 시키고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언어 활용에 대한 장점을 살려 자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 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에게 한국의 정체성을 살리고 자신감을 지닐 수 있도록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각종 여건의 작용/상호작용 접근 전략으로 현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 지지와 미래사회에 대한 긍정적 사고의 필요성,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기관인 다문화 기관의 활용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적극적 사고와 함께 이를 북돋아 주는 주변의 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효과성이 극대화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도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된 이상 이들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변의 지지와 함께 정책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기관의 효율적인 활용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회적 지지가 요구된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의 성공적인 적응의 기저는 한 가족 공동체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이주여성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자신의 어려운 경험을 토대로 이를 스스로 극복하고 나아가서 타인을 돕고자 하는 이타적 행동으로 승화하는 개인적 노력이 돋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이는 개인적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사회적 지지기반이며,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수용적 태도로 보아진다. 결론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측면의 노력과 이를 수용하고 지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반을 바탕으로 다문화 전문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행히 우리의 현실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관련 연구기관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도 지역별 지역사회복지관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지원되고 있어 이의 활용과 함께 다문화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구가 요구된다고 본다.

특히 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 경험과정 속에서 혼란스러운 가족관계나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한국생활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상태도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주여성들의 한국 가족생활 적응 경험은 자신은 물론 가족 구성원 전체의 안녕감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고 학교와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적인 수준에서도 그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파악된 관련 요소들과 가치체계를 고려하여 이들의 적응을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위와 같은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다문화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언어교육을 강화하고 대상자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경험과정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소통의 문제이다. 언어소통을 위한 사회정책을 강화하여 한국어교육의 세분화된 언어교육서비스 및 언어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빈곤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가구소득은 일반가구소득에 비하여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들의 빈곤예방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출산과 양육지원 정책 확대 실시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및 자녀양육에 장애가 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료시설의 접근성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 안내, 예방접종 알림서비스 등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양육과 취업을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넷째, 위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지지 망 강화가 필요하다. 이주여성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별로 자조모임 활성화 및 지역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 등이 사회적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유미·신혜중(201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4, 1393쪽~1410쪽.
- 고미숙(2019). 이혼한 베트남이주여성의 결혼경험 및 부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1), 401쪽~414쪽.
- 구세롬미(2022). 결혼이주여성의 이주동기에 따른 문화적응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W지역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자(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적 문제와 학교적응.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201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응과 정서적 유능감이 자녀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홍창의(2017). 다문화가정 자녀의 차별경험과 언어문제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1), 195쪽~211쪽.
- 김순옥·김현숙(2016).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지지와 가족지지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6), 462쪽~473쪽.

- 김철희·조남예(2017).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문화 경험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86, 431쪽~450쪽.
- 김현숙(2010).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135쪽~159쪽.
- 박동숙·임해영·김은경(2019).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62, 5쪽~41쪽.
- 박수정(2018). 이주여성의 생애사와 경제활동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진주시 여성사업가를 대상으로.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승덕(2013).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 탐구. <한국복지실천학회>. 4(1), 1쪽~23쪽.
- 박이분(2019).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희연(2022).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과 업무 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외국인주민센터 상담통역원을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정원(2018).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참여, 사회적응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경림 역(2001). 근거이론의 단계. 서울: 현문사. Strauss, A & Corbin, J.,(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 안옥희·전미순·황윤영(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 경험. <다문화건강학회지>. 1(1), 33쪽~43쪽.
- 양진향·박현주·김송순·강은정·변상희·방지수(2012).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가족 적응 경험. <한국간호과학회>. 42(1), 36쪽~47쪽.
- 여성가족부(2022).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 오은정·정향미(2019). 결혼이주여성의 한국문화 적응 개념분석.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3(4), 250쪽~260쪽.
- 유진희(2014).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태균 역(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나남. Padgett, D.,(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Thousand Oaks, CA: Sage.
- 이들녀·심미영(2013).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에 관한 주관적 인식유형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9(3), 43쪽~72쪽.
- 이승민·구차순(2013). 결혼이주여성의 초등학교 자녀 양육 경험의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7(2), 59쪽~87쪽.
- 이은아(2013).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 노릇과 정체성: 자녀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 29(3), 115쪽~146쪽.
- 이은주·전미경(2014).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한 베트남 결혼이주여

- 성의 적응경험 연구. <가정과 삶의 질 학회>. 32(5), 63쪽~86쪽.
- 이지영(2019).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 역할수행'을 통한 임파워먼트 과정.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채영(2015).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해영 · 이혁구(2014). 양육 결정 미혼모의 초기 모성 경험에 관한 연구: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 <사회복지연구>. 45(3), 35쪽~69쪽.
- 정명희(2013).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부모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회>. 20(8), 257쪽~276쪽.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용역 과제 최종보고서.
- 최미경(2018).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활동 경험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2018). 지역별 다문화 혼인.
- 한미자(2021).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자기효능감, 부부애착의 매개효과-. 칼빈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행정안전부(2020). 결혼이민자 및 인권 · 귀화자 현황(외국인 주민 현황조사).
- 허명준(2020).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 적응 사례연구를 통한 사회복지실천의 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진흥원. 5(1), 107쪽~115쪽.
- Byoun, S. J. · Leung, P.(2015). Understanding the cultural adaptation of foreign wives of South Korean men,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25(2), 124-132.
- Glaser, B.G. · Strauss, A.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hicago: Aldine.
- Lincoln, Y. S. · Guba, E. G.(1985). *Naturalistic Inquiry*, CA: Sage.
- Strauss, A. · Corbin, J.(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2nd ed.)*, Thousand Oaks, CA: Sage.

필자 소개

성 명 전해경

소 속 호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주 소 군산시 임피면 호원대 3길 64 1동 312호

전자우편 lsch4219@naver.com

| Abstract

**A Model Study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Married Migrant Women
to Korean Life
- Focusing on Vietnamese Migrant Women -**

Jeon, hye-kyung
(How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experiences of married migrant women through the marriage life experience process and draw useful points to support them. To this end, 10 study participants were selected and analyzed using the evidence theory method. According to the analysis, marriage migrant women's adaptation to 'differences in diet and living culture',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discrimination experience', 'self-esteem', 'realization of a life alone', 'vision', 'difficulties in values with husband', 'difficulty in coexistence with in-laws', 'future', 'intention', 'creative culture'. Based on this, marriage migrant women's adaptation experience process was first shown as a stage of realizing scary reality, second, disconnected daily life, third, the burden of real conditions, fourth, challenging the world, and fifth, leading life.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oposed a step-by-step intervention plan for adaptive development to support married migrant women.

|Key words| Married migrant women, Adaptation of married migrant women, Overcoming Cultural Differences among Migrant Women

투고일 2022. 10. 31 / 심사일 2022. 11. 2 / 심사완료일 2022. 11. 16

www.kci.go.kr